

제5차 인식조사 결과, 저출생 반등 '청신호' 뚜렷

- 미혼남녀 결혼 긍정인식, 2년간 9.8%p 상승(55.9%→65.7%)
- 20대(만25~29세) 여성 결혼의향 인식, 8.7%p 상승(56.6%→65.2%)
- 미혼남녀 자녀 필요성 인식, 12.6%p 상승(50%→62.6%)
- 미혼남녀 출산의향 인식, 11.2%p 상승(29.5%→40.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를 실시(3.25~3.31)하고, 그 결과를 5월 7일 발표하였다.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조사		조사기관	조사규모	조사기간	조사표본	조사방법
'24년	(1차) 3월	한국 리서치	총 2,011명	2024.3.29. ~ 4.3.	지역· 연령· 성별 비례 할당	모바일 조사 (자기 기입식 웹조사)
	(2차) 9월		총 2,592명	2024.8.31. ~ 9.7.		
'25년	(3차) 3월		총 2,650명	2025.3.31. ~ 4.10.		
	(4차) 8월		총 2,800명	2025.8.20. ~ 8.27.		
'26년	(5차) 3월		총 2,800명	2026.3.25. ~ 3.31.		

* '24년 3월 전국 만 25~49세 국민 대상 처음 실시, 매년 두 차례(3월, 8~9월) 반복 조사, 결혼·출산의향 등에 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 국민 인식 변화 추이에 활용

-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 3월 조사에서는 미혼남녀들의 긍정인식이 크게 증가했는데, '24년 3월 대비 결혼 긍정인식이 9.8%p 늘어난 65.7%로 나타났고, 자녀 필요성과 출산의향도 각각 12.6%p, 11.2%p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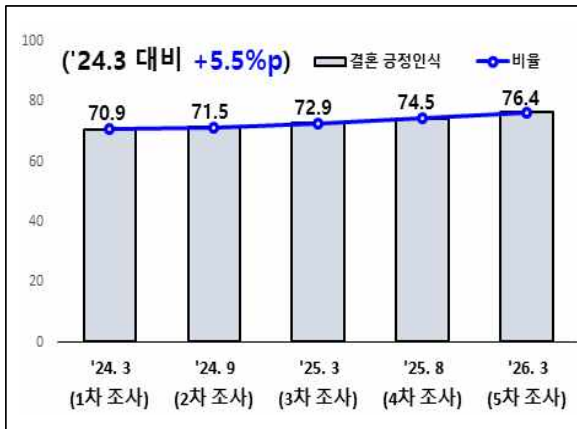
□ 인식조사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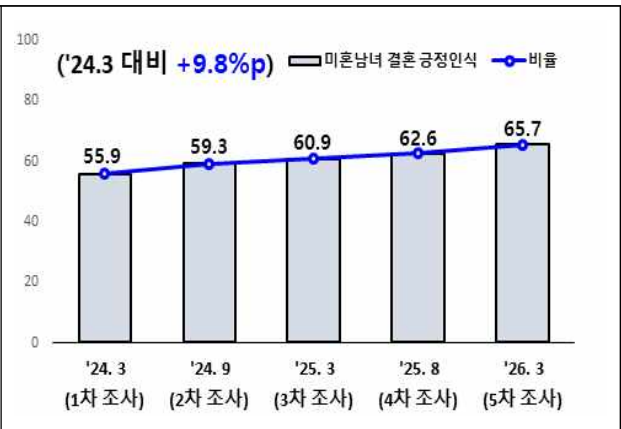
① (결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응답 비율은 76.4%로 1차 조사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4.3. 대비 +5.5%p).

○ 특히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55.9%에서 9.8%p가 늘어난 65.7%로, 상승 추세가 더 두드러졌다.

< 결혼 긍정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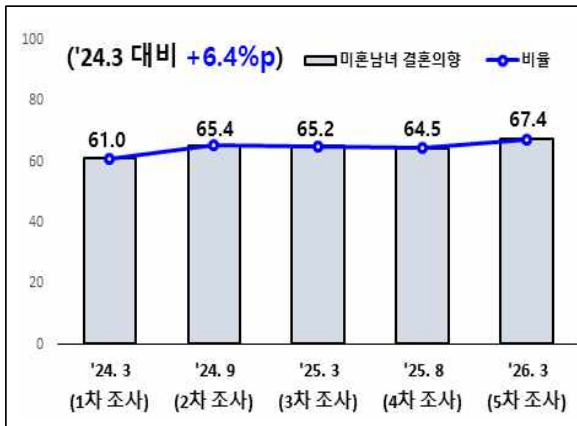


< 미혼남녀 결혼 긍정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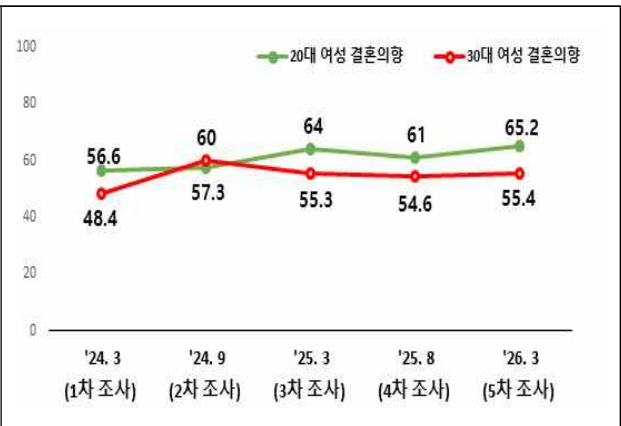


○ 또한 미혼남녀 결혼의향은 1차 조사 대비 6.4%p 증가했으며, 20대·30대 여성에서 결혼의향이 모두 1차 조사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다(20대: +8.6%p, 30대: +7.0%p).

< 미혼남녀 결혼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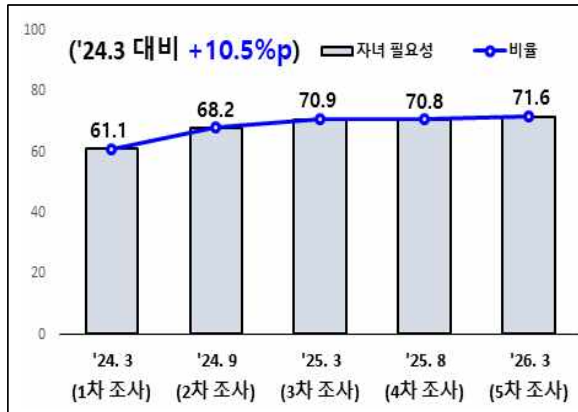


< 20·30대 여성 결혼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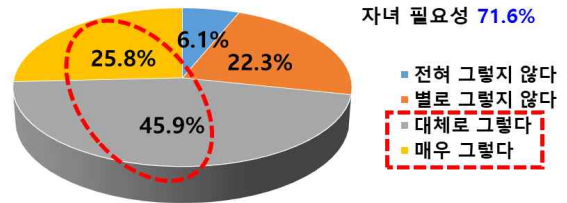


② (출산)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71.6%로 1차 조사대비 10.5%p 대폭 증가했으며, '출산의향'에 있어서도 무자녀가구는 32.6%에서 41.8%로 9.2%p나 늘어난 반면 유자녀가구는 1차 조사와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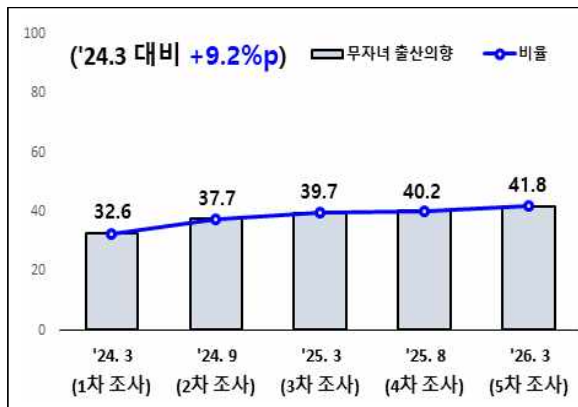
< 자녀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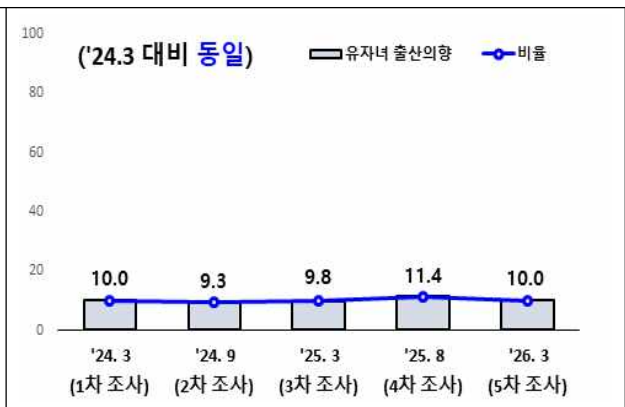
< 자녀 필요성_5차조사 상세 >



< 무자녀(미혼, 무자녀 기혼) 출산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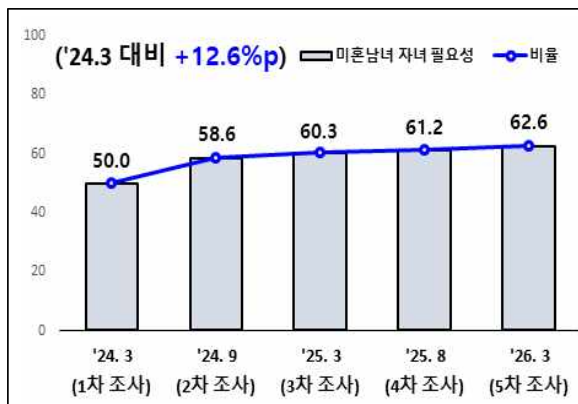
< 유자녀가구 추가 출산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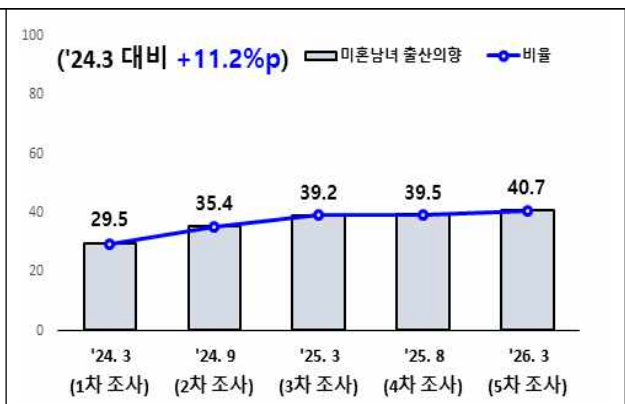
○ 특히 미혼남녀에서 '자녀의 필요성'과 '출산의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녀 필요성 '24.3 대비 +12.6%p, 출산의향 '24.3 대비 +1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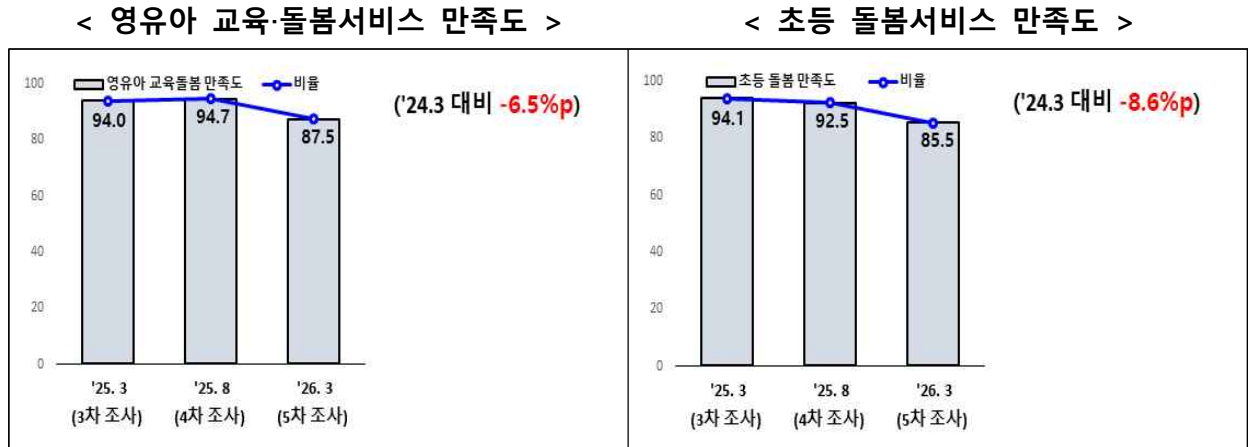
< 미혼남녀 자녀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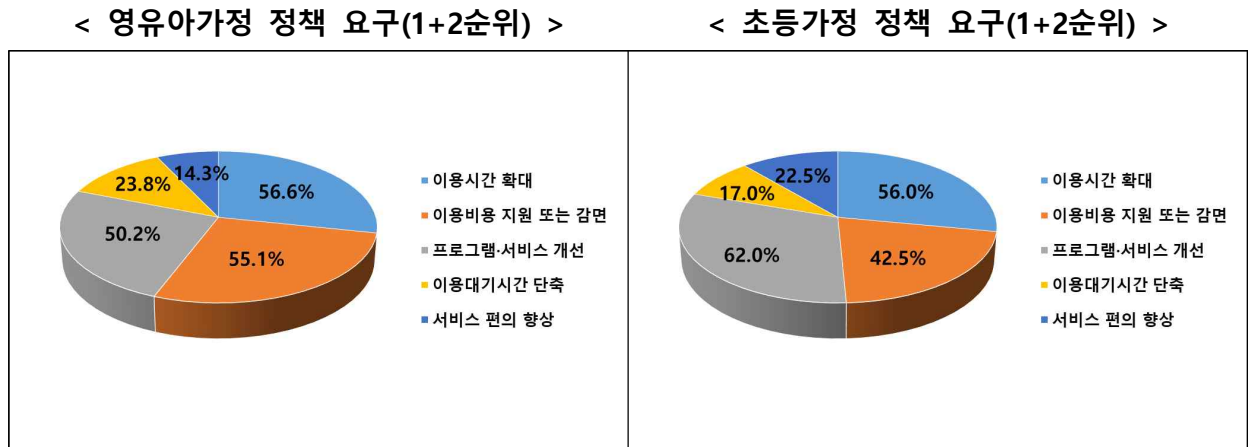
< 미혼남녀 출산의향 >



③ (양육)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지만, 3차 조사 대비하여 영유아·초등 돌봄 만족도는 모두 감소했다(영유아 '25.3 대비 -6.5%p, 초등 '25.3 대비 -8.6%p).



○ 돌봄서비스의 정책 요구사항으로 영유아가정은 '이용시간 확대',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높았다.



④ (일·가정양립) 맞벌이 가구는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시간 보장(연장보육·초등돌봄 확대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과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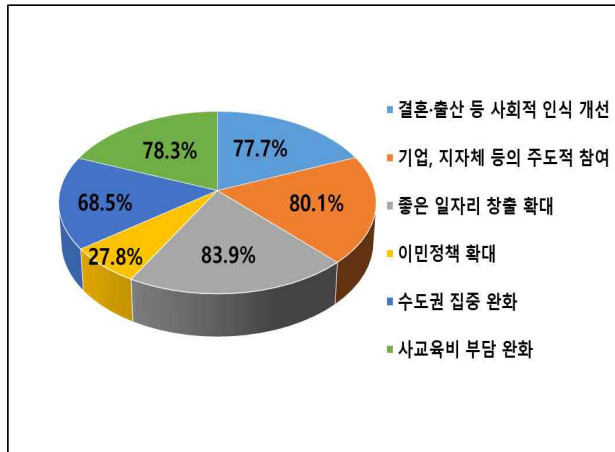
*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25.3)55.6% → ('25.8)49.8% → ('26.3)51.7%

*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시간 보장: ('25.3)39.8% → ('25.8)40.1% → ('26.3)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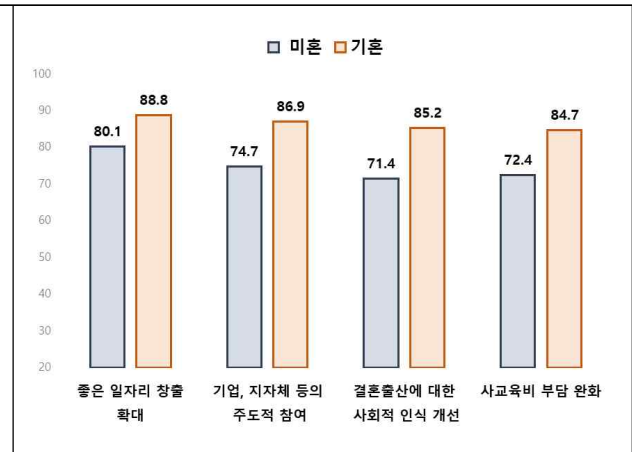
【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

- ① (중요도)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 중요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가 가장 높았으며, 미혼·기혼 모두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구조적 문제 중요도(각영역별 100점) >



< 사회구조적 문제 중요도_5차조사 상세 >



② (정책요구 및 대응 방향)

- 일·가정양립분야는 4차 조사와 동일하게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높았으며(62.3%→60.6%), 남성(53.1%) 대비 여성(68.6%) 응답이 높아 여성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로 확인되었다.
 - 결혼·출산·양육분야는 여전히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1.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문항은 여성(45.8%) 대비 남성(56.5%) 응답이 높아 남성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로 확인되었다.
 - 주거분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45.3%)'가 가장 높았으며,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는 20대(46.4%)와 미혼(44.1%)의 요구도가 가장 높아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고위는 금번 결혼·출산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저출생 반등의 청신호로 평가하고, 향후 인구전략 방향 설정에 국민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인식 상승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낸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 “앞으로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내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주거·돌봄 등 삶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인식조사 주요결과 상세 별첨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혜인 (02-2100-1241)
		담당자	전문위원	지성화 (02-2100-1244)

1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24년 3월 조사 대비 5.5%p 증가하였으며, 직전 조사인 '25년 8월 조사와 비교하면 1.9%p 증가하였다.

* 전체: ('24.3) 70.9% → ('24.9) 71.5% → ('25.3) 72.9% → ('25.8) 74.5% → ('26.3) 76.4%

- 특히, 미혼남녀는 '24년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9.8%p 증가, '25년 8월 조사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혼남녀: ('24.3) 55.9% → ('24.9) 59.3% → ('25.3) 60.9% → ('25.8) 62.6% → ('26.3) 65.7%

- 또한 만25~29세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24년 3월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남성: +8.7%p, 여성: +4.4%p)은 의미가 있다.

<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단위 : %)

'24년~'26년		전체	성별		성별*연령						혼인상태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미혼	기혼
'24년 3월	긍정	58.2	61.6	54.6	53.2	51.3	65.0	52.8	62.4	57.5	49.3	66.5
	매우긍정	12.7	15.6	9.5	15.0	8.0	15.1	13.6	16.4	6.9	6.7	18.7
	계	70.9	77.2	64.2	68.3	59.2	80.1	66.4	78.8	64.4	55.9	85.3
'24년 9월	긍정	56.2	57.2	55.2	60.5	45.5	54.9	56.4	57.8	58.2	49.5	62.7
	매우긍정	15.3	19.3	11.0	14.9	11.9	23.7	11.2	17.6	10.5	9.9	20.8
	계	71.5	76.5	66.2	75.4	57.4	78.5	67.6	75.3	68.7	59.3	83.6
'25년 3월	긍정	57.4	59.0	55.6	55.2	47.9	53.9	50.4	65.1	63.2	51.1	64.6
	매우긍정	15.6	18.8	12.2	13.9	13.1	21.9	11.6	18.1	12.3	9.8	22.8
	계	72.9	77.7	67.8	69.1	61.0	75.8	62.0	83.2	75.4	60.9	87.3
'25년 8월	긍정	59.5	61.4	57.4	63.4	49.6	56.4	54.0	64.9	63.7	53.6	66.0
	매우긍정	15.0	19.4	10.4	16.8	12.3	19.7	11.2	20.2	8.9	9.0	22.1
	계	74.5	80.7	67.8	80.2	61.9	76.1	65.3	85.1	72.5	62.6	88.1
'26년 3월	긍정	59.7	60.9	58.5	59.5	50.4	58.4	52.9	63.8	66.6	55.7	64.3
	매우긍정	16.7	20.6	12.5	17.5	13.2	20.8	13.7	21.8	11.1	10.0	25.4
	계	76.4	81.5	70.9	77.0	63.6	79.2	66.7	85.6	77.6	65.7	89.7

■ 결혼의향

- 미혼남녀는 '24년 3월 조사 대비 결혼의향이 6.4%p 증가하였으며, 직전 조사인 '25년 8월 조사와 비교하면 2.9%p 증가하였다.

* 전체: ('24.3) 61.0% → ('24.9) 65.4% → ('25.3) 65.2% → ('25.8) 64.5% → **('26.3) 67.4%**

- 특히, 만25~29세 여성과 만30~39세 여성이 '24년 3월 조사 대비 결혼의향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대: +8.6%p, 30대: +7.0%p).

* 20대 여성: ('24.3) 56.6% → ('24.9) 57.3% → ('25.3) 64.0% → ('25.8) 61.0% → **('26.3) 65.2%**

* 30대 여성: ('24.3) 48.4% → ('24.9) 60.0% → ('25.3) 55.3% → ('25.8) 54.6% → **('26.3) 55.4%**

< 결혼의향 >

(단위 : %)

	'24년~'26년	전체	성별		연령			성별*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4년 3월	지금 하고싶음	10.8	12.6	8.7	7.6	10.0	14.9	7.1	8.3	11.6	8.3	19.6	9.6
	언젠가 하고싶음	46.5	55.9	35.7	54.3	48.1	36.3	62.5	44.5	60.3	34.5	44.3	27.5
	구체적 계획있음	3.7	3.5	3.8	5.0	3.9	1.9	6.0	3.8	2.4	5.6	1.8	2.0
	계	61.0	72.0	48.2	66.9	62.1	53.2	75.5	56.6	74.3	48.4	65.8	39.1
'24년 9월	지금 하고싶음	11.0	13.8	7.5	7.4	13.4	12.8	6.8	8.0	18.8	6.8	15.9	7.7
	언젠가 하고싶음	50.4	55.6	43.6	56.3	49.2	43.2	64.7	46.4	52.6	45.0	47.8	35.6
	구체적 계획있음	4.0	3.5	4.6	4.0	5.5	1.4	5.0	2.9	3.4	8.2	1.7	0.9
	계	65.4	72.9	55.7	67.7	68.1	57.4	76.5	57.3	74.8	60.0	65.4	44.2
'25년 3월	지금 하고싶음	13.4	16.8	9.1	10.4	15.0	14.7	12.1	8.5	18.1	11.1	20.8	5.8
	언젠가 하고싶음	48.3	51.1	44.8	54.1	45.9	44.1	57.1	50.7	49.1	41.9	46.6	40.5
	구체적 계획있음	3.5	3.4	3.6	3.8	3.5	3.0	2.9	4.7	4.3	2.4	2.2	4.1
	계	65.2	71.2	57.4	68.3	64.4	61.9	72.1	64.0	71.5	55.3	69.7	50.4
'25년 8월	지금 하고싶음	12.3	14.9	9.2	10.6	13.0	13.5	11.6	9.5	14.9	10.6	19.8	5.4
	언젠가 하고싶음	48.7	55.9	40.1	53.5	47.9	42.2	61.8	44.6	56.0	38.1	46.7	36.4
	구체적 계획있음	3.5	2.1	5.1	3.8	4.4	1.0	0.8	6.9	3.3	5.9	1.8	0.0
	계	64.5	72.9	54.4	67.9	65.3	56.7	74.2	61.0	74.2	54.6	68.3	41.8
'26년 3월	지금 하고싶음	13.7	17.5	9.1	8.2	16.5	16.5	8.9	7.5	21.6	10.8	21.9	8.3
	언젠가 하고싶음	50.7	56.4	43.9	59.8	46.3	45.3	65.9	53.1	52.2	39.9	51.2	36.4
	구체적 계획있음	3.0	2.3	3.9	2.8	4.5	0.6	1.2	4.6	4.3	4.7	0.5	0.8
	계	67.4	76.2	56.9	70.8	67.3	62.4	76.0	65.2	78.1	55.4	73.6	45.5

■ 결혼의향 있으나 미혼인 이유

- 결혼의향은 있으나 미혼인 이유는 '24년 9월 조사부터 동일하게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가 1·2순위로 조사되었다.

* 결혼자금: ('24.3) 75.5% → ('24.9) 74.1% → ('25.3) 76.7% → ('25.8) 77.1% → (**'26.3) 74.2%**

- 특히, 만25~29세 미혼남녀는 '26년 3월 조사에서 30대·40대 연령 대비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가 응답률 차이가 커 결혼자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대 대비 12.6%p 차이).

< 결혼의향 있으나 미혼인 이유 >

(단위 : %)

'24년~'26년	전체	성별		연령			성별*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4년 3월	상대를 못 만나서	78.2	79.7	75.5	74.6	79.3	81.7	78.9	67.8	78.7	80.6	81.8	81.4
	알자리 찾지 못해서	35.8	38.9	30.3	52.2	33.6	16.4	57.6	43.8	36.8	27.6	18.2	13.0
	다른 일 더 열중	42.9	43.0	42.8	61.3	40.4	21.6	64.0	57.0	40.4	40.5	20.3	24.2
	결혼자금	75.5	82.5	63.1	88.1	77.1	57.0	92.8	80.7	82.1	67.6	70.3	31.4
	역할 변화 불안감	54.2	50.7	60.3	56.8	54.2	50.6	51.5	65.1	52.0	58.3	48.0	55.5
'24년 9월	상대를 못 만나서	72.8	74.5	69.7	64.3	73.6	86.2	66.5	61.0	75.0	71.1	85.9	87.1
	알자리 찾지 못해서	32.2	36.5	24.6	44.2	25.5	23.5	54.0	29.2	25.8	24.9	27.8	13.0
	다른 일 더 열중	38.4	39.1	37.1	51.1	36.1	20.2	56.0	43.7	35.5	37.2	19.7	21.3
	결혼자금	74.1	75.2	72.2	89.0	75.7	45.0	90.2	87.1	77.8	72.2	48.4	36.7
	역할 변화 불안감	54.2	47.3	66.4	53.0	56.3	52.6	43.5	67.5	50.7	65.8	47.6	64.9
'25년 3월	상대를 못 만나서	73.8	76.4	69.5	66.7	75.1	83.0	71.1	60.8	76.3	73.1	84.2	80.4
	알자리 찾지 못해서	32.7	35.2	28.6	40.9	31.4	21.6	45.2	35.2	34.2	26.9	23.3	17.9
	다른 일 더 열중	42.8	42.8	42.9	56.7	38.8	27.8	59.0	53.6	38.4	39.6	28.3	26.8
	결혼자금	76.7	79.4	72.4	88.0	77.9	55.7	87.3	88.8	82.2	70.9	63.3	39.3
	역할 변화 불안감	52.1	46.7	60.6	53.3	54.4	45.5	49.4	58.4	49.8	61.9	37.5	62.5
'25년 8월	상대를 못 만나서	74.6	79.3	66.7	66.2	77.4	84.2	71.6	58.4	82.4	68.4	85.6	81.5
	알자리 찾지 못해서	33.5	34.0	32.7	40.3	33.4	21.2	39.3	41.6	33.2	33.8	27.0	9.3
	다른 일 더 열중	40.3	40.0	40.7	52.6	35.8	27.3	51.9	53.6	35.3	36.8	30.6	20.4
	결혼자금	77.1	79.9	72.4	88.3	77.1	56.4	90.2	85.6	80.3	71.4	62.2	44.4
	역할 변화 불안감	50.5	46.2	57.7	47.1	52.6	52.1	44.3	51.2	46.6	63.2	48.6	59.3
'26년 3월	상대를 못 만나서	77.7	79.4	74.9	69.5	78.7	89.3	67.9	71.7	82.0	73.3	90.5	86.4
	알자리 찾지 못해서	31.0	34.5	25.1	47.6	22.1	20.4	60.6	30.3	19.7	26.0	24.5	10.2
	다른 일 더 열중	42.3	42.1	42.7	57.1	38.6	25.2	59.6	53.8	38.1	39.3	25.9	23.7
	결혼자금	74.2	75.1	72.6	86.4	73.8	54.9	87.0	85.5	74.5	72.7	60.5	40.7
	역할 변화 불안감	52.1	46.8	60.7	56.2	54.0	41.7	51.8	62.1	46.4	66.0	40.8	44.1

2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 자녀 필요성

- 자녀의 필요성 인식은 '24년 3월 조사 대비 10.5%p 증가하였으며, 직전 조사인 '25년 8월 조사와 비교하면 0.8%p로 소폭 증가하였다.

* 전체: ('24.3) 61.1% → ('24.9) 68.2% → ('25.3) 70.9% → ('25.8) 70.8% → ('26.3) 71.6%

- 특히, 미혼남녀는 '24년 3월 조사 대비 자녀의 필요성 인식이 12.6%p 증가, '25년 8월 조사 대비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혼남녀: ('24.3) 50.0% → ('24.9) 58.6% → ('25.3) 60.3% → ('25.8) 61.2% → ('26.3) 62.6%

- 또한 만30~39세 남성과 여성은 직전 조사인 '25년 8월 조사와 비교하면 증가추세인 점이 확인되었다(남성: +6.5%p, 여성: +1.3%p).

< 자녀 필요성 >

(단위 : %)

'24년~'26년		전체	성별		성별*연령						혼인상태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미혼	기혼
'24년 3월	긍정	42.1	46.7	37.2	48.2	25.9	48.1	35.1	44.9	43.7	38.2	45.6
	매우긍정	18.9	23.0	14.7	18.0	8.5	23.4	16.6	24.8	15.7	11.8	25.7
	계	61.1	69.7	51.9	66.2	34.4	71.5	51.7	69.7	59.4	50.0	71.3
'24년 9월	긍정	44.3	45.1	43.5	45.7	36.6	43.8	42.7	46.0	46.9	41.8	46.6
	매우긍정	23.8	31.1	16.0	26.4	11.6	33.8	15.0	31.0	18.8	16.8	30.5
	계	68.2	76.3	59.5	72.1	48.1	77.6	57.7	77.0	65.7	58.6	77.1
'25년 3월	긍정	45.3	46.4	44.1	49.0	36.4	47.6	42.2	44.2	48.9	43.6	46.6
	매우긍정	25.6	31.5	19.2	22.0	12.3	29.9	17.9	37.1	23.2	16.7	35.7
	계	70.9	78.0	63.4	71.0	48.7	77.5	60.1	81.4	72.1	60.3	82.3
'25년 8월	긍정	45.8	47.4	44.0	53.5	38.9	47.4	40.8	44.8	48.7	45.5	45.5
	매우긍정	25.0	31.6	18.1	23.8	13.1	26.8	15.2	39.3	22.6	15.7	35.2
	계	70.8	79.0	62.0	77.3	52.0	74.1	56.0	84.1	71.4	61.2	80.6
'26년 3월	긍정	45.9	49.4	42.1	56.5	35.6	51.4	38.4	44.5	47.9	46.6	44.5
	매우긍정	25.8	31.2	20.0	19.0	12.0	29.2	18.8	38.3	24.4	16.0	37.0
	계	71.6	80.6	62.1	75.5	47.6	80.6	57.3	82.8	72.3	62.6	81.6

■ 이상적인 자녀 수

○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4년 3월 조사부터 '26년 3월 조사까지 동일하게 1.8명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24.3) 1.8명 → ('24.9) 1.8명 → ('25.3) 1.8명 → ('25.8) 1.8명 → ('26.3) 1.8명

- 특히, 1~5차 조사에서 여성(1.7명) 보다 남성(1.9명)이 더 높았으며, 유자녀 중에서는 3자녀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25.3월 조사 2.4명).

< 이상적인 자녀 수 >

(단위 : %)

'24년~'26년	전체	성별		성별*연령						기혼*유자녀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명	2명	3명 이상	
'24년 3월	1명	19.4	17.0	22.0	19.6	26.5	17.9	20.4	15.0	21.4	22.0	11.4	10.1
	2명	64.8	68.4	60.9	68.3	54.6	67.1	62.9	69.5	61.9	68.0	76.4	68.1
	3명 이상	8.5	9.8	7.2	8.1	3.8	10.6	5.9	9.9	9.6	8.5	10.3	21.7
	평균(명)	1.8	1.9	1.7	1.9	1.5	1.9	1.6	1.9	1.8	1.8	1.9	2.2
'24년 9월	1명	18	15.3	21.1	10.9	23.6	15.4	22.0	13.4	22.6	24.3	12.5	12.1
	2명	65.8	67.0	58.8	72.3	52.4	69.3	63.6	66.5	66.1	67.6	72.4	55.6
	3명 이상	9.2	10.1	4.4	8.4	4.0	11.2	6.1	14.3	7.4	7.1	12.3	29.3
	평균(명)	1.8	1.9	1.7	1.8	1.4	1.9	1.7	1.9	1.8	1.8	1.9	2.1
'25년 3월	1명	18.5	15.1	22.0	17.4	22.9	17.1	22.6	12.4	21.2	17.8	11.3	8.6
	2명	64.7	67.5	61.7	69.9	55.9	64.3	59.7	69.3	65.8	73.4	72.9	68.6
	3명 이상	9.2	10.7	7.7	5.8	7.2	10.4	7.4	13.1	8.1	6.5	14.1	21.0
	평균(명)	1.8	1.9	1.7	1.8	1.6	1.8	1.7	1.9	1.8	1.9	2.0	2.2
'25년 8월	1명	16.6	14.6	18.7	17.6	19.0	16.1	20.5	12.0	16.9	16.6	9.2	12.9
	2명	65.8	69.3	62.1	69.6	59.5	66.7	59.2	71.5	65.7	69.6	74.4	50.9
	3명 이상	10.5	11.8	9.1	7.3	5.6	10.8	6.7	14.7	12.7	11.5	14.2	35.3
	평균(명)	1.8	1.9	1.7	1.9	1.6	1.9	1.6	2.0	1.9	1.9	2.0	2.3
'26년 3월	1명	16.8	15.5	18.2	16.7	19.2	19.5	19.2	11.3	16.8	18.9	10.4	4.9
	2명	66.8	69.1	64.3	67.7	60.8	67.4	61.4	71.2	68.2	71.9	73.6	57.3
	3명 이상	9.3	10.9	7.5	8.2	2.8	8.4	5.9	14.4	10.8	7.9	14.3	37.9
	평균(명)	1.8	1.9	1.7	1.8	1.5	1.8	1.6	2.0	1.9	1.9	2.0	2.4

■ 출산의향(무자녀)

- 무자녀 남녀(미혼, 무자녀 기혼)는 '24년 3월 조사 대비 출산의향이 9.2%p 증가하였으며, 직전 조사인 '25년 8월 조사와 비교하면 1.6%p 증가하였다.

* 전체: ('24.3) 32.6% → ('24.9) 37.7% → ('25.3) 39.7% → ('25.8) 40.2% → ('26.3) 41.8%

- 특히, '24년 3월 조사 대비 미혼남녀는 출산의향 11.2%p, 기혼남녀는 7.6%p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이 확인되었다.

* 미혼남녀: ('24.3) 29.5% → ('24.9) 35.4% → ('25.3) 39.2% → ('25.8) 39.5% → ('26.3) 40.7%

* 기혼남녀: ('24.3) 42.4% → ('24.9) 50.7% → ('25.3) 43.3% → ('25.8) 44.4% → ('26.3) 50.0%

< 출산의향(무자녀) >

(단위 : %)

'24년~'26년		전체	성별		성별*연령						혼인상태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미혼	기혼
'24년 3월	낳을 생각 있음	32.6	41.0	23.1	43.3	26.4	49.1	30.9	31.4	12.3	29.5	42.4
	낳지 않을 생각	29.7	20.3	40.3	9.7	36.8	17.3	32.1	31.6	51.7	28.4	34.1
	생각 중임	27.8	28.9	26.5	35.4	27.0	28.0	30.0	24.6	22.6	29.6	21.8
	생각 없음	9.9	9.8	10.0	11.7	9.8	5.5	7.1	12.4	13.4	12.5	1.7
'24년 9월	낳을 생각 있음	37.7	44.5	29.0	51.5	28.1	49.0	35.7	31.2	18.0	35.4	50.7
	낳지 않을 생각	24.8	18.1	33.2	12.8	34.1	15.2	26.3	27.7	44.3	24.3	26.4
	생각 중임	26.9	26.8	27.1	27.0	29.2	26.7	31.3	26.8	16.8	28.4	20.0
	생각 없음	10.6	10.6	10.7	8.8	8.7	9.2	6.7	14.3	20.9	11.9	2.9
'25년 3월	낳을 생각 있음	39.7	48.9	28.7	52.0	34.7	53.8	32.8	37.6	14.0	39.2	43.3
	낳지 않을 생각	23.7	15.7	33.3	10.9	28.4	11.7	28.0	27.4	48.9	21.9	31.8
	생각 중임	25.7	24.0	27.8	24.2	29.7	23.6	26.4	24.4	28.1	26.5	21.6
	생각 없음	10.8	11.4	10.1	12.9	7.2	10.9	12.9	10.7	9.0	12.4	3.3
'25년 8월	낳을 생각 있음	40.2	49.4	29.8	52.5	37.2	50.6	34.4	43.6	12.5	39.5	44.4
	낳지 않을 생각	23.9	15.7	32.9	12.9	28.9	14.7	30.6	20.9	42.2	22.1	32.1
	생각 중임	25.4	26.2	24.5	27.5	25.2	26.5	23.4	24.1	25.5	26.7	19.3
	생각 없음	10.6	8.7	12.7	7.1	8.7	8.2	11.6	11.4	19.8	11.7	4.1
'26년 3월	낳을 생각 있음	41.8	51.2	31.1	48.0	34.0	57.3	34.7	44.7	19.8	40.7	50.0
	낳지 않을 생각	22.7	15.2	31.3	11.7	33.2	14.8	22.6	19.4	46.7	21.3	28.8
	생각 중임	25.3	24.4	26.3	29.3	26.6	21.2	28.8	24.5	20.9	26.4	18.1
	생각 없음	10.2	9.2	11.3	10.9	6.2	6.7	14.0	11.5	12.6	11.5	3.1

■ 출산의향(유자녀)

- 유자녀 남녀는 '24년 3월 조사 대비 출산의향이 10%로 동일했으며, 직전 조사인 '25년 8월 조사와 비교하면 1.4%p 감소하였다.

* 전체: ('24.3) 10% → ('24.9) 9.3% → ('25.3) 9.8% → ('25.8) 11.4% → **('26.3) 10%**

- 특히, 만30~39세 유자녀 여성은 '24년 3월 조사와 비교하면 뚜렷한 증가추세로 확인되었다(+6.9%p).

* 30대 여성: ('24.3) 11.9% → ('24.9) 10.8% → ('25.3) 15.3% → ('25.8) 16.5% → **('26.3) 18.8%**

< 출산의향(유자녀) >

(단위 : %)

'24년~'26년		전체	성별		성별*연령						기혼*유자녀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1명	2명	3명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4년 3월	낳을 생각 있음	10.0	13.4	6.6	8.4	20.2	24.0	11.9	6.1	2.6	18.3	4.1	2.9
	낳지 않을 생각	67.1	57.7	76.3	58.3	53.4	45.4	66.7	66.5	83.6	51.5	77.4	85.5
	생각 중임	15.4	20.7	10.3	33.3	20.0	24.2	17.1	17.5	5.6	23.2	10.6	4.3
	생각 없음	7.5	8.2	6.8	0.0	6.5	6.4	4.4	9.9	8.2	7.0	7.9	7.2
'24년 9월	낳을 생각 있음	9.3	13.1	6.0	40.5	31.6	20.1	10.8	9.1	3.0	14.8	6.0	3.0
	낳지 않을 생각	68.8	64.4	72.6	46.1	21.9	52.9	59.1	70.5	80.3	57.2	76.7	76.8
	생각 중임	14.2	15.9	12.8	13.3	38.4	23.5	25.3	12.1	6.3	23.0	8.1	8.1
	생각 없음	7.7	6.6	8.6	0.0	8.1	3.4	4.8	8.4	10.3	5.0	9.2	12.1
'25년 3월	낳을 생각 있음	9.8	11.7	8.1	36.4	28.6	22.9	15.3	6.5	4.3	17.3	4.6	6.7
	낳지 않을 생각	67.1	63.8	70.1	36.4	50.0	43.1	52.8	73.0	78.1	54.7	74.8	78.1
	생각 중임	15.6	18.6	13.0	27.3	21.4	27.8	27.0	14.6	6.9	22.7	11.7	7.6
	생각 없음	7.4	5.9	8.8	0.0	0.0	6.3	4.9	5.9	10.7	5.4	9.0	7.6
'25년 8월	낳을 생각 있음	11.4	14.5	8.4	55.6	40.0	24.4	16.5	8.5	4.2	19.8	5.0	5.2
	낳지 않을 생각	69.5	65.7	73.3	33.3	30.0	47.0	55.3	74.9	82.0	58.1	78.1	79.3
	생각 중임	11.8	14.0	9.7	5.6	30.0	25.6	18.8	9.5	5.4	16.6	8.8	5.2
	생각 없음	7.2	5.9	8.5	5.6	0.0	3.0	9.4	7.0	8.4	5.5	8.1	10.3
'26년 3월	낳을 생각 있음	10.0	13.0	7.1	69.2	22.2	22.2	18.8	7.1	2.9	17.7	4.1	4.9
	낳지 않을 생각	68.0	62.5	73.2	15.4	55.6	45.1	55.8	71.5	79.4	56.2	76.3	80.6
	생각 중임	13.4	17.5	9.5	15.4	22.2	26.8	18.8	13.7	6.1	20.6	8.9	2.9
	생각 없음	8.6	7.0	10.2	0.0	0.0	5.9	6.5	7.7	11.6	5.5	10.8	11.7

■ 출산의향 긍정 조건

- 출산의향의 긍정 조건은 '25년 3월·8월 조사와 동일하게 '소득이 좀 더 많다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면'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소득이 좀 더 많다면: ('25.3) 34.5% → ('25.8) 34.6% → **(26.3) 33.5%**

- 특히, '25년 8월과 '26년 3월 조사에서 1순위로 나온 '소득 조건'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남성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27.4%)', 여성은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22.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육아휴직 사용(남성): ('25.3) 26.0% → ('25.8) 26.0% → **(26.3) 27.4%**

* 육아 함께 참여(여성): ('25.3) 17.3% → ('25.8) 21.2% → **(26.3) 22.7%**

< 출산의향 긍정 조건(1+2순위)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상태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미혼	기혼
'25년 3월	소득이 좀 더 많다면	34.5	37.1	31.7	31.1	34.1	36.3	31.2	37.9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22.3	26.0	18.3	21.8	21.3	23.3	20.2	24.6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면	19.4	17.3	21.6	21.6	19.4	18.4	18.8	20.5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18.0	20.5	15.2	17.6	21.5	15.1	20.2	15.8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14.5	11.8	17.3	21.0	16.2	10.2	20.2	8.4
	정부의 육아 수당이 늘어난다면	18.0	19.3	16.6	16.6	20.4	16.6	14.8	21.3
'25년 8월	소득이 좀 더 많다면	34.6	39.9	29.0	30.1	33.7	37.4	31.6	37.6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22.1	26.0	18.1	20.2	22.7	22.5	20.5	24.1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면	19.7	19.3	20.2	21.0	19.6	19.3	19.3	19.8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18.4	20.4	16.2	15.4	22.5	16.0	19.1	17.6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15.9	11.0	21.2	21.1	17.6	12.2	21.4	10.2
	정부의 육아 수당이 늘어난다면	15.8	17.5	13.9	14.3	17.2	15.2	11.6	20.5
'26년 3월	소득이 좀 더 많다면	33.5	39.0	27.7	32.9	32.2	35.0	31.5	35.3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22.9	27.4	18.0	20.0	23.0	23.9	21.7	24.4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면	19.6	19.0	20.2	17.9	21.3	18.7	17.7	21.9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17.8	19.4	16.1	16.4	22.0	14.8	18.8	17.2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17.1	11.8	22.7	23.1	20.6	11.4	22.7	11.0
	정부의 육아 수당이 늘어난다면	15.2	17.1	13.1	14.1	14.3	16.4	12.3	18.6

3 양육,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 영유아 교육·돌봄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요구

- 영유아 교육·돌봄서비스 만족도는 '25년 3월 조사 대비 6.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25.3) 94.0% → ('25.8) 94.7% → ('26.3) 87.5%

- 영유아 교육·돌봄서비스의 정책 요구 사항으로 '이용시간 확대(56.6%)', '이용비용 지원·감면(55.1%)', '프로그램 개선·서비스 질 향상(50.2%)'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영유아 교육·돌봄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요구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거주지역			맞벌이 여부		
				남성	여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맞벌이	와벌이	
'25년 3월	만족도	긍정	59.3	53.1	66.7	62.0	57.6	57.1	58.5	59.3	
		매우긍정	34.7	39.3	29.3	33.3	37.3	31.0	35.9	33.6	
		계	94.0	92.4	95.9	95.4	94.9	88.1	94.4	92.9	
	정책 요구	이용 대기시간 단축	19.8	20.0	19.5	18.5	22.9	14.3	19.0	21.2	
		이용시간 확대	54.1	60.0	47.2	58.3	51.7	50.0	58.5	46.0	
		이용비용 지원·감면	63.4	66.2	60.2	59.3	64.4	71.4	60.6	68.1	
		프로그램 개선·서비스 질 향상	50.0	44.1	56.9	53.7	48.3	45.2	52.1	49.6	
		서비스 편의 향상	12.7	9.7	16.3	10.2	12.7	19.0	9.9	15.0	
	'25년 8월	만족도	긍정	51.4	51.9	50.8	54.5	48.2	54.3	52.6	48.0
			매우긍정	43.3	43.1	43.5	39.4	46.8	41.3	42.8	45.6
계			94.7	95.0	94.4	93.9	95.0	95.7	95.4	93.6	
정책 요구		이용 대기시간 단축	21.5	25.6	16.1	28.3	17.3	19.6	23.7	18.4	
		이용시간 확대	57.7	62.5	51.6	59.6	54.7	63.0	65.8	47.2	
		이용비용 지원·감면	57.7	60.6	54.0	55.6	58.3	60.9	55.3	60.8	
		프로그램 개선·서비스 질 향상	50.4	41.9	61.3	49.5	51.8	47.8	44.1	58.4	
		서비스 편의 향상	12.7	9.4	16.9	7.1	18.0	8.7	11.2	15.2	
'26년 3월		만족도	긍정	55.8	59.4	50.0	56.1	57.1	48.0	55.7	51.4
			매우긍정	31.7	25.5	42.0	32.5	30.2	36.0	31.7	33.3
	계		87.5	84.8	92.0	88.6	87.3	84.0	87.4	84.7	
	정책 요구	이용 대기시간 단축	23.8	23.0	25.0	24.6	23.0	24.0	24.6	26.4	
		이용시간 확대	56.6	64.8	43.0	58.8	55.6	52.0	58.1	48.6	
		이용비용 지원·감면	55.1	52.1	60.0	56.1	54.8	52.0	48.5	63.9	
		프로그램 개선·서비스 질 향상	50.2	48.5	53.0	51.8	47.6	56.0	53.3	47.2	
		서비스 편의 향상	14.3	11.5	19.0	8.8	19.0	16.0	15.6	13.9	

■ 초등 돌봄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요구

○ 초등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25년 3월 조사 대비 8.6%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25.3) 94.1% → ('25.8) 92.5% → ('26.3) 85.5%

○ 초등 돌봄서비스의 정책 요구 사항으로 '25년 3월~'26년 3월 조사와 동일하게 '프로그램 개선·서비스 질 향상', '이용시간 확대', '이용비용 지원·감면'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프로그램 개선·질 향상: ('25.3) 70.6% → ('25.8) 67.5% → ('26.3) 62.0%

* 이용시간 확대: ('25.3) 50.8% → ('25.8) 54.8% → ('26.3) 56.0%

* 이용비용 지원·감면: ('25.3) 37.4% → ('25.8) 41.7% → ('26.3) 42.5%

< 초등 돌봄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요구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거주지역			맞벌이 여부	
				남성	여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맞벌이	와벌이
'25년 3월	만족도	긍정	61.8	59.7	64.0	61.2	63.5	58.1	57.7	67.0
		매우긍정	32.4	37.1	27.2	32.0	30.8	38.7	35.8	27.5
		계	94.1	96.8	91.2	93.2	94.2	96.8	93.5	94.5
	정책 요구	이용 대기시간 단축	13.9	18.5	8.8	10.7	18.3	9.7	14.6	15.4
		이용시간 확대	50.8	57.3	43.9	57.3	45.2	48.4	56.1	47.3
		이용비용 지원·감면	37.4	38.7	36.0	40.8	33.7	38.7	30.1	44.0
		프로그램 개선·서비스 질 향상	70.6	63.7	78.1	70.9	71.2	67.7	70.7	72.5
서비스 편의 향상	27.3	21.8	33.3	20.4	31.7	35.5	28.5	20.9		
'25년 8월	만족도	긍정	61.8	63.1	60.4	70.5	60.4	48.7	59.0	66.0
		매우긍정	30.7	29.5	32.1	20.5	32.4	46.2	29.9	32.0
		계	92.5	92.6	92.5	91.0	92.8	94.9	88.9	97.9
	정책 요구	이용 대기시간 단축	10.5	9.8	11.3	10.3	12.6	5.1	14.5	5.2
		이용시간 확대	54.8	59.8	49.1	52.6	56.8	53.8	54.7	55.7
		이용비용 지원·감면	41.7	50.0	32.1	53.8	36.0	33.3	41.0	43.3
		프로그램 개선·서비스 질 향상	67.5	59.8	76.4	62.8	66.7	79.5	65.0	70.1
서비스 편의 향상	25.4	20.5	31.1	20.5	27.9	28.2	24.8	25.8		
'26년 3월	만족도	긍정	61.5	69.1	52.2	62.0	60.2	63.2	64.7	57.7
		매우긍정	24.0	17.3	32.2	20.3	27.7	23.7	22.4	23.1
		계	85.5	86.4	84.4	82.3	88.0	86.8	87.1	80.8
	정책 요구	이용 대기시간 단축	17.0	12.7	22.2	20.3	19.3	5.3	19.0	11.5
		이용시간 확대	56.0	54.5	57.8	58.2	56.6	50.0	58.6	53.8
		이용비용 지원·감면	42.5	45.5	38.9	49.4	38.6	36.8	39.7	48.1
		프로그램 개선·서비스 질 향상	62.0	65.5	57.8	55.7	63.9	71.1	59.5	67.3
서비스 편의 향상	22.5	21.8	23.3	16.5	21.7	36.8	23.3	19.2		

■ 일·가정양립 평가(본인, 배우자)

- 본인의 일·가정양립이 '잘 되고 있다'는 인식이 '25년 3월 조사 대비 3.8%p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자녀의 인식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6.6%p).

* 전체: ('25.3) 60.4% → ('25.8) 62.3% → ('26.3) 64.2%

- 배우자의 일·가정양립이 '잘 되고 있다'는 인식이 '25년 3월 조사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혼가구에서 10명 중 7명은 배우자의 일·가정양립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 전체: ('25.3) 70.0% → ('25.8) 70.5% → ('26.3) 72.2%

< 일·가정양립 평가(본인, 배우자)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연령			자녀 유무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유자녀	무자녀
'25년 3월	본인	잘 되고 있음	55.5	55.4	55.6	55.8	53.7	56.8	59.3	52.8
		매우 잘 되고 있음	4.9	4.6	5.2	5.5	4.6	4.9	5.1	4.7
		계	60.4	60.1	60.9	61.3	58.3	61.7	64.4	57.5
	배우자	잘 되고 있음	60.8	63.8	58.8	65.5	61.6	60.1	60.8	60.6
		매우 잘 되고 있음	9.2	11.3	7.8	17.2	12.1	7.4	7.8	14.4
		계	70.0	75.1	66.6	82.8	73.7	67.5	68.6	75.0
'25년 8월	본인	잘 되고 있음	56.5	57.1	55.9	62.6	52.1	58.2	60.6	53.5
		매우 잘 되고 있음	5.8	6.3	5.0	5.5	6.6	5.1	6.0	5.6
		계	62.3	63.4	60.9	68.1	58.7	63.4	56.4	68.5
	배우자	잘 되고 있음	61.9	67.3	58.2	71.1	59.0	62.8	60.3	69.1
		매우 잘 되고 있음	8.6	11.3	6.8	15.8	11.2	6.9	8.3	10.1
		계	70.5	78.6	64.9	86.8	70.2	69.7	68.6	79.2
'26년 3월	본인	잘 되고 있음	58.4	57.5	59.4	60.0	55.1	61.1	64.1	54.5
		매우 잘 되고 있음	5.8	6.7	4.8	4.7	5.9	6.2	6.8	5.1
		계	64.2	64.2	64.2	64.7	61.0	67.3	71.0	59.6
	배우자	잘 되고 있음	64.5	69.1	61.0	57.9	62.3	66.2	63.0	70.0
		매우 잘 되고 있음	7.6	9.1	6.5	21.1	10.2	5.5	7.5	8.1
		계	72.2	78.2	67.5	78.9	72.5	71.8	70.5	78.1

■ 일·가정생활 균형 위해 필요한 사항(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25년 3월~'26년 3월 조사와 동일하게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직장문화: ('25.3) 55.6% → ('25.8) 49.8% → **(26.3) 51.7%**

*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 ('25.3) 39.8% → ('25.8) 40.1% → **(26.3) 44.6%**

* 육아시간 제도 확대: ('25.3) 36.3% → ('25.8) 37.2% → **(26.3) 35.1%**

- 특히, '26년 3월 조사에서 남성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52.6%)', 여성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57.4%)'가 높아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자녀수			자녀 계획	
			남성	여성	1명	2명	3명 이상	있음	없음
'25년 3월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55.6	56.5	54.3	56.2	56.1	50.0	54.2	55.6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	39.8	48.4	28.5	40.6	38.6	43.2	48.6	38.7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	36.3	39.9	31.5	35.6	35.8	41.9	40.3	35.9
	배우자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24.4	16.4	35.0	23.5	25.9	20.3	12.5	25.9
	가정 내 돌봄 인력 지원 확대	23.5	26.2	19.9	24.8	22.8	21.6	30.6	20.3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	20.4	12.6	30.9	19.4	20.8	23.0	13.9	23.5
'25년 8월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49.8	51.0	48.1	50.9	49.6	44.9	49.5	47.9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	40.1	43.9	34.3	43.2	37.1	40.6	45.5	39.9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	37.2	39.6	33.4	35.5	37.8	42.0	36.6	36.9
	배우자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26.2	21.2	33.7	23.6	27.3	33.3	20.8	28.2
	가정 내 돌봄 인력 지원 확대	25.1	28.8	19.4	27.9	22.8	23.2	25.7	24.2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	21.7	15.5	31.0	18.8	25.3	15.9	21.8	22.9
'26년 3월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51.7	47.6	57.4	51.8	52.9	45.1	52.8	51.6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	44.6	52.6	33.5	47.0	41.0	50.7	47.2	42.8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	35.1	36.9	32.6	38.9	32.8	28.2	36.0	34.7
	배우자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25.3	22.3	29.6	23.9	26.4	26.8	24.7	26.0
	가정 내 돌봄 인력 지원 확대	22.7	26.6	17.2	22.5	22.9	22.5	27.0	21.0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 분담	20.5	14.0	29.6	15.8	24.0	26.8	12.4	23.9

3 정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

■ 저출생 대책 추진 시 우선순위 고려 대상

○ 저출생 대책 추진 시 우선순위 고려 대상은 '25년 8월 조사와 동일하게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 '결혼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 ('25.8) 29.8% → ('26.3) 29.1%

* 결혼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 ('25.8) 26.0% → ('26.3) 27.1%

*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25.8) 24.3% → ('26.3) 23.6%

- 특히, '26년 3월 조사에서 남성은 '결혼 했지만 자녀 없는 가정(27.2%)', 여성은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33.3%)'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성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저출생 대책 추진 시 우선순위 고려 대상 >

(단위 : %)

'25년~'26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 유무		결혼생각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미혼	기혼	유녀	무녀	긍정적	부정적
'25년 8월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	29.8	23.7	36.2	21.3	27.9	35.0	29.1	29.8	30.3	29.4	28.4	33.8
	결혼 했지만 자녀 없는 가정	26.0	25.1	27.1	25.0	25.3	27.2	23.1	28.5	25.1	26.7	26.4	25.1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24.3	29.3	19.0	32.2	26.3	19.1	32.1	17.0	16.6	29.8	24.2	24.5
	1자녀 양육가정	9.8	11.5	7.9	11.4	11.3	7.7	7.9	11.8	13.3	7.2	10.5	7.4
	2자녀이상 양육가정	9.9	10.2	9.6	9.5	8.9	10.9	7.5	12.5	14.4	6.7	10.4	8.5
'26년 3월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	29.1	25.1	33.3	23.7	27.6	32.6	28.4	30.0	28.5	29.4	28.3	31.6
	결혼 했지만 자녀 없는 가정	27.1	27.2	27.0	28.7	26.8	26.7	23.2	31.5	28.5	26.2	28.6	22.2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23.6	26.3	20.7	29.1	25.5	19.5	32.1	14.1	14.3	29.5	22.2	28.0
	1자녀 양육가정	10.3	10.6	10.0	10.0	10.4	10.4	8.3	12.2	14.7	7.5	10.7	9.2
	2자녀이상 양육가정	9.6	10.4	8.8	8.1	9.4	10.6	7.5	11.9	13.9	6.9	10.0	8.5

■ 사회구조적 문제 중요도

○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 중요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25년 8월 조사와 동일하게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 참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25.8) 84.1% → ('26.3) 83.9%

*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 참여: ('25.8) 80.3% → ('26.3) 80.1%

* 사교육비 부담 완화: ('25.8) 80.0% → ('26.3) 78.3%

< 사회구조적 문제 중요도(중요하다 선택 비율)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성별*연령						혼인상태	
			남성	여성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미혼	기혼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5년 8월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9.9	79.4	80.5	73.6	76.2	79.2	76.7	82.0	85.4	75.3	84.7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 참여	80.3	78.5	82.3	71.8	81.7	80.1	81.3	79.9	83.4	76.0	84.9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84.1	82.7	85.7	78.8	83.3	83.5	86.0	83.7	86.4	81.4	86.9
	이민정책 확대	29.4	31.0	27.6	33.7	31.0	30.4	26.0	30.4	27.5	28.6	30.7
	수도권 집중 완화	71.4	71.6	71.1	71.8	72.2	72.2	71.8	71.0	70.0	72.1	70.9
	사교육비 부담 완화	80.0	78.6	81.6	73.6	77.8	75.0	80.1	84.0	84.4	76.4	83.9
'26년 3월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7.7	79.3	76.0	74.0	72.0	78.0	73.9	82.8	79.5	71.4	85.2
	기업, 지자체 등의 주도적 참여	80.1	78.6	81.8	74.3	84.4	78.1	78.6	80.9	83.4	74.7	86.9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83.9	81.8	86.1	79.2	86.0	79.6	83.3	85.0	88.6	80.1	88.8
	이민정책 확대	27.8	30.9	24.4	30.9	24.0	29.0	22.0	32.7	26.6	27.2	28.4
	수도권 집중 완화	68.5	70.4	66.5	69.1	70.8	71.0	66.9	70.6	64.4	68.5	69.6
	사교육비 부담 완화	78.3	77.6	79.0	68.4	79.6	77.1	73.1	82.0	83.9	72.4	84.7

■ 분야별 중요도

-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은 '26년 3월 조사에서 '결혼·출산·양육 분야(86.8%)', '주거 분야(86.4%)', '교육·돌봄 분야(85.6%)'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일·가정양립 분야: ('25.8) 86.7% → ('26.3) 85.1%

* 교육·돌봄 분야: ('25.8) 85.6% → ('26.3) 85.6%

* 결혼·출산·양육 분야: ('25.8) 88.2% → ('26.3) 86.8%

* 주거 분야: ('25.8) 85.7% → ('26.3) 86.4%

- 특히, '26년 3월 조사에서 남성은 '주거 분야(86.0%)', 여성은 '결혼·출산·양육 분야(88.6%)'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성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만30~39세 남성은 '주거 분야(85.1%)', 만30~39세 여성은 '일·가정양립 분야(86.5%)'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30대의 성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야별 중요도(중요하다 선택 비율)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성별*연령						혼인상태		
				만25~29세		만30~39세		만40~4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미혼	기혼	
'25년 8월	일·가정양립 분야	86.7	83.4	90.1	79.1	89.7	83.4	88.6	85.4	91.6	83.8	89.7
	교육·돌봄 분야	85.6	83.4	87.9	79.9	84.9	83.4	87.0	85.0	89.9	83.0	88.2
	결혼·출산·양육 분야	88.2	86.1	90.4	83.9	90.5	84.4	89.0	88.7	91.6	86.1	90.9
	주거 분야	85.7	84.9	86.6	82.1	87.7	86.1	84.6	85.1	87.8	85.1	86.3
'26년 3월	일·가정양립 분야	85.1	82.4	88.0	81.4	87.6	80.5	86.5	84.5	89.6	80.8	90.1
	교육·돌봄 분야	85.6	84.1	87.2	77.3	86.4	84.8	84.7	86.4	89.7	81.1	90.7
	결혼·출산·양육 분야	86.8	85.1	88.6	81.4	90.0	84.8	85.3	87.1	90.8	83.0	91.3
	주거 분야	86.4	86.0	86.8	84.8	90.4	85.1	84.7	87.4	87.1	83.3	90.1

■ 향후 저출생 정책과제 요구

- (일·가정양립) '25년 8월 조사와 동일하게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중소기업 육아휴직 추가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25.3) 50.6% → ('25.8) 62.3% → **(26.3) 60.6%**

* 중소기업 육아휴직 추가 지원 확대: ('25.3) 33.9% → ('25.8) 43.9% → **(26.3) 42.5%**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25.3) 53.5% → ('25.8) 37.0% → **(26.3) 39.0%**

- 특히, '26년 3월 조사에서 가장 높게 응답한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과제는 남성(53.1%) 대비 여성(68.6%)이 높아 여성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로 확인되었다.

< 향후 강화/확대되어야 할 정책과제 요구(1+2순위)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상태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미혼	기혼
'25년 3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53.5	59.3	47.2	52.1	54.7	53.0	53.9	52.9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50.6	44.7	56.9	51.3	51.4	49.7	49.7	52.5
	육아휴직 기간 확대	40.2	41.2	39.0	42.6	38.8	40.3	40.1	40.6
	중소기업 육아휴직 추가 지원 확대	33.9	32.8	35.0	28.3	31.6	38.3	32.5	34.4
	임산부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추가 확대	21.9	21.8	22.0	25.7	23.6	18.8	23.9	19.6
'25년 8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37.0	44.0	29.6	30.3	41.5	36.0	34.7	39.8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62.3	56.6	68.4	66.9	58.5	63.6	62.7	61.4
	육아휴직 기간 확대	32.8	34.6	30.8	32.0	35.6	30.6	33.8	31.7
	중소기업 육아휴직 추가 지원 확대	43.9	40.9	47.2	41.9	40.7	47.7	43.2	44.7
	임산부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추가 확대	24.0	24.0	24.0	29.0	23.8	22.1	25.7	22.4
'26년 3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39.0	46.3	31.3	37.4	39.6	39.2	36.3	42.2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60.6	53.1	68.6	59.7	58.9	62.5	58.3	63.3
	육아휴직 기간 확대	34.5	36.9	32.0	36.8	37.5	30.9	36.1	32.7
	중소기업 육아휴직 추가 지원 확대	42.5	39.0	46.1	39.5	41.3	44.8	42.6	42.5
	임산부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추가 확대	23.4	24.6	22.1	26.6	22.8	22.6	26.7	19.3

○ (교육·돌봄) '26년 3월 조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 '초등돌봄 인력, 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사교육비 경감 위한 교육과정 및 내용 개선'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25.3) 47.8% → ('25.8) 52.3% → ('26.3) 52.3%
- * 초등돌봄 인력, 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25.3) 37.9% → ('25.8) 37.6% → ('26.3) 37.6%
- * 사교육비 경감 위한 교육과정 및 내용 개선: ('25.3) 40.9% → ('25.8) 39.9% → ('26.3) 37.2%

- 특히, '25년 3월~'26년 3월 조사와 동일하게 '육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대상·시간) 확대' 요구가 성·연령·혼인상태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관되게 요구도가 높은 과제로 확인되었다.

< 향후 강화/확대되어야 할 정책과제 요구(1+2순위)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상태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미혼	기혼
'25년 3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	47.8	47.7	48.0	48.9	47.9	47.3	48.9	47.0
	사교육비 경감 위한 교육과정 및 내용 개선	40.9	44.1	37.4	34.5	38.0	46.0	35.7	46.1
	초등돌봄 인력, 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37.9	39.1	36.6	37.2	35.4	40.3	34.3	42.8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27.4	30.0	24.6	28.9	33.4	21.6	29.5	25.5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유형 확대	26.2	22.8	29.9	27.1	25.5	26.5	26.9	25.8
	한부모·조손가구·학대아동등 돌봄지원 확대	19.8	16.4	23.4	23.4	19.8	18.2	24.6	12.8
'25년 8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	52.3	51.9	52.8	51.2	52.7	52.4	53.6	50.9
	사교육비 경감 위한 교육과정 및 내용 개선	39.9	40.9	38.9	35.0	35.3	46.1	33.4	46.1
	초등돌봄 인력, 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37.6	39.5	35.5	35.6	39.2	37.0	35.9	39.8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26.1	30.5	21.4	29.0	30.0	21.5	28.1	24.5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유형 확대	26.1	23.3	29.0	27.0	26.0	25.7	25.8	26.4
	한부모·조손가구·학대아동등 돌봄지원 확대	18.0	13.8	22.5	22.1	16.8	17.3	23.2	12.3
'26년 3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	52.3	52.4	52.1	51.3	52.9	52.1	51.5	53.0
	사교육비 경감 위한 교육과정 및 내용 개선	37.2	38.3	36.1	33.3	32.6	43.0	31.4	43.6
	초등돌봄 인력, 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37.6	41.2	33.9	35.6	37.5	38.6	37.0	38.6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25.9	29.8	21.7	30.6	27.6	22.3	28.6	23.4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기관 서비스 유형 확대	27.0	23.7	30.6	25.2	28.6	26.5	26.6	27.2
	한부모·조손가구·학대아동등 돌봄지원 확대	20.0	14.7	25.6	23.9	20.8	17.6	24.8	14.1

○ (결혼·출산·양육) '26년 3월 조사에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25.3) 52.2% → ('25.8) 50.4% → **(26.3) 51.3%**
- *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25.3) 34.6% → ('25.8) 39.6% → **(26.3) 41.2%**
- * 현금성 지원 확대: ('25.3) 49.9% → ('25.8) 41.2% → **(26.3) 39.6%**

- 특히, '25년 3월~ '26년 3월 조사와 동일하게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요구가 성·연령·혼인상태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관되게 요구도가 높은 과제로 확인되었다.

< 향후 강화/확대되어야 할 정책과제 요구(1+2순위)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상태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미혼	기혼
'25년 3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52.2	58.5	45.4	56.2	52.0	50.7	53.9	50.7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확대	49.9	48.5	51.5	44.0	50.5	52.0	42.7	56.5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34.6	33.6	35.7	41.8	35.7	30.7	40.2	29.2
	난임 비용, 휴가 및 상담 지원 확대	25.5	26.4	24.5	21.2	24.3	28.3	26.6	24.8
	소아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25.4	22.1	28.9	26.5	26.4	24.1	25.3	25.9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12.4	10.9	14.0	10.3	11.2	14.3	11.4	13.0
'25년 8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50.4	56.4	43.9	53.7	50.9	48.4	49.6	52.0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확대	41.2	43.4	38.9	36.2	41.5	43.1	33.0	49.4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39.6	36.9	42.4	47.6	38.1	37.4	46.5	32.4
	난임 비용, 휴가 및 상담 지원 확대	31.5	31.1	31.9	25.0	33.0	33.0	32.6	30.2
	소아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25.9	23.3	28.6	26.5	26.0	25.4	26.4	25.3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11.5	8.9	14.2	11.0	10.4	12.7	11.9	10.8
'26년 3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51.3	56.5	45.8	54.3	52.0	49.4	49.0	54.6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확대	39.6	42.8	36.2	33.7	37.7	43.8	30.8	49.2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41.2	39.3	43.2	49.9	40.1	38.5	48.8	32.4
	난임 비용, 휴가 및 상담 지원 확대	30.6	31.3	30.0	25.6	30.6	32.8	32.3	28.8
	소아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26.2	21.1	31.6	24.7	28.7	24.6	28.1	23.8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11.1	9.0	13.3	11.8	10.9	11.0	11.0	11.1

○ (주거) '26년 3월 조사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출산가구 대상 주거 대출금리 인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 ('25.3) 45.1% → ('25.8) 41.5% → ('26.3) 45.3%

*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25.3) 41.8% → ('25.8) 39.1% → ('26.3) 39.7%

* 출산가구 대상 주거 대출금리 인하: ('25.3) 41.9% → ('25.8) 34.6% → ('26.3) 34.9%

- 특히, 20대(46.4%)와 미혼(44.1%)은 주거분야에서 1순위인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 과제보다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요구도가 높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향후 강화/확대되어야 할 정책과제 요구(1+2순위) >

(단위 : %)

'25년~'26년		전체	성별		연령			혼인상태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미혼	기혼
'25년 3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	45.1	43.2	47.1	43.8	43.5	47.0	43.7	46.5
	출산가구 대상 주거 대출금리 인하	41.9	40.9	43.0	37.4	43.7	42.3	37.0	47.2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신혼출산)	41.8	45.9	37.3	45.3	41.2	40.8	46.1	37.4
	신혼·출산가구 주거 대출금액 확대	35.6	36.1	35.1	38.8	38.5	31.8	37.2	33.8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전용 주택 공급 확대	35.6	33.8	37.5	34.7	33.1	38.1	36.0	35.2
'25년 8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	41.5	38.4	44.8	37.0	40.8	44.0	39.0	43.7
	출산가구 대상 주거 대출금리 인하	34.6	38.0	31.0	31.6	36.8	33.9	30.3	39.9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신혼출산)	39.1	39.6	38.6	46.1	38.1	37.0	43.8	35.0
	신혼·출산가구 주거 대출금액 확대	29.6	31.6	27.4	29.5	32.5	27.2	30.5	28.4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전용 주택 공급 확대	36.6	36.5	36.7	35.6	34.0	39.3	35.8	37.1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18.6	15.9	21.5	20.2	17.8	18.6	20.5	15.8
'26년 3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	45.3	42.8	47.9	39.1	44.9	48.1	43.0	47.2
	출산가구 대상 주거 대출금리 인하	34.9	37.6	32.0	32.6	35.5	35.4	30.1	40.6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신혼출산)	39.7	42.8	36.4	46.4	40.6	36.0	44.1	35.1
	신혼·출산가구 주거 대출금액 확대	29.6	31.5	27.5	32.6	32.3	25.9	32.0	27.2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전용 주택 공급 확대	33.7	32.5	35.1	32.4	29.9	37.7	32.3	35.2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16.9	12.9	21.1	17.0	16.8	16.9	18.6	14.6